

농식품부, 주말 호우 대비 총력 대응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 과수 지주시설 고정, 배수로 정비, 병해충 예방 약제 사전살포, 비닐하우스 결박 조치,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집중호우 시 외출자제 당부
- 특히, 과거 피해지역에서 동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주 주말 중부와 남부 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 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목요일인 6월 19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비가 집중되는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며,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매우 큰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예상강수량 : (수도권강원내륙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 20~60mm(많은 곳 경기북부강원북부 내륙 80mm이상), (경북북부내륙과북동산지) 10~50, (부산울산경남·경북) 5~40, (제주) 5~30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중인 수리시설·식량·원예·축산 등 간부급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보완 조치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상황 전파, 단계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하여 농경지 배수로 정비, 과수 지주시설 고정, 비오기 전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비닐하우스 결박 조치,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하고,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과거에 피해가 발생하였던 상습 침수지역 등 같은 지점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등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주말에도 비상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재원 (044-201-1791)
		담당자	사무관	김일수 (044-201-1794)



집중호우·태풍 대비

농업인 사전관리 요령

과수

비, 발작물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잡초, 토사물 제거 등 배수로 정비



비오기 전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농업시설물



비닐하우스 사전점검 및 결박 조치



출입문 및 환기창 고정, 강풍 유입 방지



축사는 보조기둥, 버팀목 미리 설치

농기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침수 예방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



아외보관 시 비닐 등으로 덮어주고 단단히 매어 두기

안전사고 예방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및 비상연락처 확인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대피 준비



농림축산식품부